

“소중한 권리 잊지 마세요”

익산시, 전 직원 사전투표 실시로 투표 열기 확산

익산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제고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간부회의를 통해 투표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준비상황 최종 점검과 투표 독려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29개 읍면동 공동주택과 마을에 투표 안내 방송을 요청했으며, 이·통장을 활용한 홍보 등 각 읍면동별 투표 독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시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에 투표 안내 콘텐츠를 게시하고 시청 통화연결을 설정, 유관기관과 단체에 투표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생애 최초 선거권을 갖는 약 1천2백명의 고등학생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지역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투표 독려 활동을 적극 요청했다.

다가오는 27일에는 전 직원 사전투표 실시로 투표의 분위기에 열기를 더

할 계획이다.

사전투표 전날인 26일은 전 부서와 읍면동 직원이 함께 29개소 사전투표소, 31일은 87개의 본 투표소의 설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의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만큼, 투표를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거의 완성은 시민들의 소중한 표인 만큼 투표장으로 꼭 발걸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소통 강화, 아동학대 적극 대응

익산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익산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25일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교육학생 관리 대응을 위해 미등교 아동 사례에 대한 각 기관들의 개인과 처리 절차를 공유하고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보연계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개최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조기발

견과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3월부터 고위험가정 지원을 위한 민·관 유관기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어려움·돌봄 부족 등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형 경관계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

익산시가 지역 특색을 살린 익산형 경관 이미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25일 전문가 자문위원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형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에는 기존 경관계획 및 경관현황 조사·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기타도안, 실행계획 정비 등이 포함됐다.

시는 용역을 통해 기존에 수립한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경관 정책을 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익산형 경관이미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경관 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라



익산시가 지역 특색을 살린 익산형 경관 이미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북도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우수한 경관을 발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됐으며, 체계적인 도

시경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스타 오디션 추진

군산시는 2022년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무대 공연에 참가할 시민 참여팀을 모집한다.

시는 시간여행축제 무대공연에 참여할 시민 참여팀 ‘군산스타 오디션’을 오는 6월 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8회에 걸쳐 구시청광장 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사전 홍보하고 수준 높은 시민 공연을 위해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팀을 정한다.

오디션에는 군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은 행사운영팀(063-446-9228)에 문자 혹은 전화로 오는 6월 20일까지 사전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 당일 현장 즉석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에 진행되는 오디션을 통해 10개팀 정도가 선발될 예정이며 최우수팀에게는 군산시간여행축제 오프닝 공연 무대에 오르는 특전이 주어진다.

그 외 선발팀은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보조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이번 오디션에 참여한 모든팀의 경우 시간여행축제 대표 프

로그램인 군산항 바부두 콩쿠르 참가 시 가산점 5점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주도하며 군산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군산스타 오디션을 통해 재능있는 시민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의미있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간여행축제는 201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10회를 맞이한 군산의 대표축제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으며 2021년 문화관광축제 중 최다 메타버스 유저 방문 기록을 세웠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군산시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황철호 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3명과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시는

육서면, 미성동 등 36.6km²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25일 실시된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2,224명, 보상금 7억300만원을 지급 결정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종합민원실 비상상황 모의훈련 실시

군산시가 25일 민원실 내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주변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 과정에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진정 유도 및 녹음 안내, 비상벨 작동, 경찰 신고, 직원 및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가해민원인 경찰 인계 등 대응반별 임무에 대한 숙지 여부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차량 관련 업체 업무협력 강화

익산시가 차량 관련 업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5일 매매상사, 변호사, 제작업체, 재활용업체 등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과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달라진 자동차관리 법령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소통·공감 행정을 펼쳤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신규 등록 등 22개 분야 민원을 일 평균 1천700여건 처리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관련 처리 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